

정부 예산안 처리 막바지... 시·도 국비확보 총력

윤시장, 국회찾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반영 등 건의

전남도, 수산식품단지 조성 등 삭감 예산 증액에 주력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이를 앞두고 다가오면서 윤장현 광주시장,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시·도 주요 간부, 시장·군수 등이 국회에서 상주하며 예산의 추가 및 신규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30일 이상배 전라산입분부장 등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반영 활동을 펼쳤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수석부대표를 차례로 만나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오후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황주홍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 등과 연세 접촉을 갖고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윤 시장은 이들에게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48억원, 월전동~무진로간 도로 개설 82억원 추가 반영(정부반영 18억원)을 요청했다. 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레독스 흡습전지 소재부품 기업 성장 지원 20억원,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 지원 15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101억원 추가 반영(정부반영 187억원), 포도닉스케어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25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운영 200억원 추가 반영(정부반영 477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

러스터 조성 53억3000만원 추가 반영(정부반영 9억1000만원)도 건의했다.

윤 시장은 “이들 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진 광주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의욕적으로 준비한 광주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이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돼 광주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전남도는 정부예산에서 삭감된 8000억원을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증액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기종 정부부지사를 중심으로,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 직원 10여명이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전남도 각 실과와 협력해 막대한 예산 증액에 힘 쓰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우기종 부지사와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김경선 건설도시국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국민의당 박지원 전대표,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안 국회 심의기간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전남도는 우선 정부부처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내년도 신규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가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 신규사업은 수산식품단지 조성 사업비 35억원과 여수 해상지상과학관 설계비 5억원, 여수 석유화학안전체험교육장 조성 55억원 등이다. 이밖에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SOC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SOC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의결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로 임박해지면서 우기종 부지사를 비롯한 전 간부와 직원들이 최대한 증액 확보를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목포시, 김 가공공장 3곳 유치

대천김 등 311억 투자협약

대양산단 활성화 기대

전남도와 목포시는 지난 30일 목포시청에서 대양산단에 김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3개 기업과 총 311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규모는 1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 보령에 본사를 두고 2대째 사업을 이어오는 김 가공 전문기업 대천김(주)은 대양산단 6500㎡ 부지에 11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마른 김과 조미 김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전남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김 원료를 확보해 양질의 김 가공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5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생산된 마른 김과 조미 김은 호남권, 부산, 울산 지역을 비롯해 중국, 미국 등 해외 수출도 추진된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다. 대천김(주)의 자회사 대천맛김(주)도 목포에 새 동지를 둔다. 대양산단 6489㎡ 부지에 101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마른 김과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5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충남 서천에서 마른 김 가공공장을 운영해온 신일수산은 대양산단 6613㎡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마른 김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3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생산된 마른 김은 대천김과 광천김 등에 조미 김 원료로 납품하고, 최종적으로 목포로 본사를 이전해 해외 수출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전남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76%를 차지하는 만큼 도에서는 우량품종 종자 개발, 시험양식, 품종 검증 등을 통해 고품질의 김 생산 기반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분권 개헌은 광주부터” 지방분권개헌 광주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30일 오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 개헌은 광주부터’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일기자 choi@kwangju.co.kr

“지방분권 가로막는 헌법조항 바꿔 지방자치 이루자”

지방분권 광주회의 출범

지방분권 광주회의가 지난 30일 출범을 선언하고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조항을 살살이 찾아 바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 북구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는 광주 구정장협의회장인 송광운 북구청장, 이민원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상임의장,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의장 등이 참석해 각각 인사말과 축사를 했다.

1부 출범식에서는 300여명 참석자들은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분

권개헌은 광주부터’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지방분권개헌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싸워 기필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이루기 위해 광주의 여러 세력이 함께 똬처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를 결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근 합의에 근접한 헌법개정안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의제로 삼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원도입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2부 행사에서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헌특강을 했다. /최현일기자 cki@

광주시·자치구 도로점용 관리 부실

대상 2500건 변상액 25억

광주시와 일선 구청이 도로 점용료와 변상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일부 구두수선소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3~2017년) 도로 점용료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해 변상금 대상이 된 건수가 2449건에 달했다.

이 중 차량 진출입로가 14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설 표지판 948

곳, 구두 수선대 88곳 등이다. 무허가 점용에 따른 변상금만도 25억4400만원에 달했다.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건수도 166건에 액수는 1억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자리잡은 구두수선소에 부과해야 할 6000여만원도 일선 지자체가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 구두수선대는 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무허가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식품가공 진흥기금 100억 1% 저리 지원

전남도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식품가공 분야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원을 1%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 원료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다.

또 농어업인 및 농수산물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해당 시군의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용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액은 12월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히 농수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1차 단순가공보다 2차 복합가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분류되며, 융자 한도는 10억 원이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올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5200만원 지원

광주시가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5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자 지원 대상은 지난 9월부터 10월 까지 광주시에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한 1126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934명이다.

오는 12월 말까지 지원 예정으로 한 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에서 상환 처리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환 후 지원결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대학교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대학원생과 휴학생까지로 확대하고, 1년 이상 거주 제한규정도 없앴다. 이를 통해 이

번 지원에는 대학원생과 휴학생 472명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까지는 당해 학기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이자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출 누적금액에 대한 이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794명의 대출이자 4억5700만원을 지원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된 문은 광주시 청년정책과(613-2723)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올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기쁜 기쁨!!

보조배터리, 손톱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이연 및 예외금발급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월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가입시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첨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